데스크시각

김 우 성

아름다운 경영, 존경받는 기업인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 후반, 태극전사들의 승전보 못지 않게 찡한 감동을 주는 빅 뉴스가 잇달았다. 하나는 IT혁명으로 부를 일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자선사업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었고 또 하나는 주식 가치투자로 거부가 된 워런 버핏이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자선재단에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 2위의 갑부.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선행 앙상블'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법 앞에 쩔쩔 매는 재벌 기업가들의 행태에 식상해온 우리 국민들이은 그 느낌이 남달랐을 법하다.

게이츠·버핏 그리고 마쓰시타

세계 1위 갑부 빌 게이츠는 지난달 15일 2008년 7월부터 회사일에서 손을 떼고 '빌 앤드 엘린다 게이츠 재단'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를 사회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고, 최선의 방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소 재산중 자녀들을 위해 1천만달러만 남기고 모두 사회에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1994년 재단을 설립, 에이즈 퇴치와 아동교육 분야에 매년 수천만달러에서 수억달러까지 기부해오고 있다. 이 재단은 이미 300억달러(3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자선단체가 됐다.

그로부터 10일후 세계 2위 부자 워런 버핏도 전 재산의 85%인 374억달러(36조원)어치 주식을 자선단체에 내놓았다. 그것도 자신과 자녀 명의의 자선재단이 있음에도 기부금의 80%를 게이츠 재단에 맡기겠다고 해 주위를 더욱 놀라게 했다. 돈을 벌기보다 책임있는 곳에 맡기는 게 더 어렵고 게이츠야말로 기부금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게 그 배경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의 왕조적 세습에 대해 반대하며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서양 전통에서 사유재산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는 그 연장성상의 핵심적 권리로 취급돼왔다. 이런 사회에서 돈을 벌 때는 악착같았던 기업인들이 성공한 후에는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푼다. 이런 게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활력과 건강성이 아닐까 싶다.

이를 단순히 서구식 기업가 정신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도 이런 훌륭한 기업가는 많다. 동과 서의 구분으로 그 정신을 재단해버릴 수만 없는 부분이다.

마쓰시타 전기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쇼이치로, 그리고 교세라 그룹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 등. 일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존경받는 이유는 투명경영. 그는 기업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땀 흘려가며 얻은 이익만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임을 강조했다. 퇴직후에도 퇴직금 56억원을 몽땅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본인은 불가에 귀의했다.

마쓰시타는 기업을 사회에 환원한 '국민 기업'의 전통을 세운 인물. 그가 남긴 유산은 2조250여억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마쓰시타전기 전체 주식의 2%에 불과했다. 가족에게 유산을 남겼을 뿐 기업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2% 짜리 쥐꼬리 지분율'에 있다. 발전하는 기업은 언젠가 시장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원리를 지켰다.

국민 사랑 못 받는 기업인들

우리에게도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김우중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다. 그리고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영 성과에 걸맞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재산이 많은데 대한 부러움의 대상일 뿐 존경의 대상은 못된다는 얘기다. 모든 어려움을 '반기업 정서'로 돌리는가 하면 경영권 세습, 투명성·도덕성 결여 등으로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이라니…. 국민들의 비아냥만 살 뿐이다.

게이츠, 버핏, 마쓰시타 등 세계적 기업인들의 '아름다운 경영' 철학을 실천할 때 우리의 기업인들도 비로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사설

참여정부 남은임기 統治 아닌 政治를 하라

노대통령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김병준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되 당장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도 속으론 떨떠름해 한다는 소식이다. 다급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한바탕 정치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수가 위험시하는 인물을 국가 장래와 청소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보직에 임명한 노대통령의 '돌파'가 낳은 일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노대통령이 왜 이처럼 무리수를 마다 않는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답은 물론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한 친위내각이 필요했다는 점일 것이다. 유시민 복지장관에 이어 또 한 사람의 '왕의 남자'를 내각 주요자리에 배치한 것이다. 부처 국과장들중 정권 말기라고 해서 야당 기웃거리는 사람은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반발에 구애되지 않고 기어이'업적'을 남기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아닌가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집트 순방중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를 개혁의 주요타깃으로 설정했다고 천명한 셈이다. 그리고 투입된 인물이 김병준씨다. 절충과 조정이 아니라 돌파를 택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런 유형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역시 같은 맥락이다. 평가가 엇갈리는 캐나다의 멀루니 전 총리를 예로 들며 후대에는 칭송받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도 그렇다.

이건 안된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소수집단의 독단을 막기 위해 3권분립을 고안해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접어야 하는게 민주주의다. 제발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고집을 꺾기 바란다.

공무원 인건비 20조, 국민은 배신감 느낀다

국가 공무원 총 인건비(보수+수당)가 올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해 7년만에 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이 144조8천억원이다. 나라 살림의 14.1%가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였다는 얘기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한데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조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이 늘어난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대신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왔다. 심지어 노대통령은 "공무원 수가 뭐가 많으냐 일만 잘하면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떻냐"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증가한 공무원수는 2만6천명에 달한다. 장차관급도 27명이나 늘었고 무엇을 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각종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일만 터지면 새 기구부터 만들 궁리에 여념이 없는 것이 참여정부다. 출산율 저하가 문제되자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급식사고 파문이 커지자 식품 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균형화 업무를 총지휘할 균형발전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가 현재 만들려는 산하기관만도 2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 조직이 생기고 공무원이 늘어나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편리를 주기는 커녕 되레 규제가 늘어났다는 원성이 높다. 국가 경쟁력 역시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이십대 90%가 백수라는 뜻의 '이구백', 십대들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의 '십장생'과 같은 씁쓸한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세금으로 버티는 정부조직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관은 살찌고 민은 피폐해지는 현실에 국민들의 느끼는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옥 영 석

소서(小暑) 단상

내일 모레면 소서(小暑)란다.

장마가 한창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온갖 과일과 소채가 풍성해지는 시절. 연중 밀과 보리가 가장 맛있는 때다. 밀이야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의 99%가 수입 산이 차지한지 오래되었다지만 보리는 여전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인기 있는 작물이다. 병충해가 적고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일손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늘어 가는 보리 재고로 농정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남아도는 양곡이 보리뿐 아니지만 생산량의 80%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면 농업인들의 시름만 느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을걷이가 끝나갈 무렵 심은 보리는 추운 겨울동안 눈 속에서 자라는데 주성분이 단백질 10%, 지방 0.5%, 전분 75%로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알칼리성 곡물이다.

현대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의 80~90%는 산성이지만, 보리는 이를 중화시키고, 폐· 간· 대장 등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해준다. 또한 영양분의 흡수를 억제하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고,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량을 증가시키는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곡물이기도 하다.

농촌에서 성장기를 보낸 이들에게 보리가 주는 추억만큼 애틋한 것도 드물다. 겨울이 오기 전, 웃자란 보리를 밟으며 어깨동무하고 보리밭을 누비던 기억. 보리밭 사이로 후드득 꿩이 날아가면 그 언저리를 뒤져 꿩알을 찾아내곤 하던 유년시절, 십리를 걸어 다니던 학교 길도 보리피리 부는 재미에 멀지가 않았다. 이삭이 여물어 가는 사월이면 주인 몰래 서너 춤 베어다가 철둑길 아래 불을 피워 후후 불어 먹던 보리서리는, 입술이며 얼굴이 온통 숯검정이 되어도 즐겁기만 했다. 비오는 날 어머니가 볶아 주시던 보리는 손이 시커멓게 집어 먹어도 질리지 않았고, 잘 빻은 보리 가루를 치대어 쑥과 함께 찐 보리개떡은 먹을 게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의 대표 간식거리였다.

그렇다고 보리가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밥맛없던 여름, 보리와 콩을 볶아 가루를 내어 새참으로 훌훌 마시던 미숫가루는 지금은 생식이나 대용식으로 발전해 종류도 가격도 천차만별로 발전하고 있다. 풋고추에 된장만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물에 말아 먹었던 보리밥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닌 웰빙의 화두가 되었다.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해 잠이 부족한 요즈음 밤새 주전부리로 소화조차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터, 입맛은 당겨 주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 주는 보리밥을 먹어 보자. 열무나 고사리, 호박이며 여러 가지 산채를 들기름, 고추장과 함께 넣고 슥슥 비벼 먹으면 훌륭한 영양식이 되고, 옛 친구와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면 추억 속으로 쏙 빠져들 수 있는 이 훌륭한 건강식이 지금 가장 맛있는 때라지 않는가.

〈농협중앙교육원 조교수 2005년 7월 은펜상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독자마당

낯 부끄러운 경기장 무질서… 성숙한 시민 의식 아쉽다

나는 여성이지만 프로야구를 좋아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야구장을 자주 찾는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행이 좌절된 뒤 식을 줄 몰랐던 월드컵 인기가 가라앉으면서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야구장을 갈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신문지·물병 등을 들고 응원하는 관중들을 많이 보는데, 이들 중 일부는 반드시 자신의 응원팀이 경기에 패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나 하면 큰 소리를 야유를 하거나 가지고 있던 물병·신문지 등을 던진다.

또 이들이 던진 물건이 관중석 앞에 앉은 사람에게 떨어지는 사고를 내기도 한다. 경기가 끝난 관중석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기도 한다.

관중들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지켜야할 에티켓이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경기장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또다른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주게된다. 또 자칫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기라도 하면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

경기장은 성인들만 찾는 공간이 아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도 많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쉽다.

▲박나영·광주시 동구 소태동

종교단체의 병실 기도, 다른 환자도 생각했으면

얼마전 조기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진 친구를 만나러 종합병원에 들렀는데, 친구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찾아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종교 단체 관계자들을 봤다.

이들은 병실을 찾아 30여분동안 소리 내어 기도를 한 뒤 노래 하고 또다시 기도를 한 뒤 돌아갔다.

친구 말로는 하루에도 이런 경우가 3~4차례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6명의 환자들이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수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환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불편을 감수하며 꾹 참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환자가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하는 곳으로,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다른 환자들을 고려한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진규·여수시 신덕동

출판계 양극화 심화… 상생방안 머리 맞대야

최근 광주지역에도 체인형 대형 서점이 개점했는데, 가뜩이나 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들에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서적을 할인해 판매하고 대형 출판사가 대형 서점 등과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광주 서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대형 서점의 지방 체인화가 가속화되면 출판계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진출하면서 지역 중·소 규모 유통업체가 힘없이 무너진 것을 보지 않았는가.

대형 서점과 중소 규모 서점이 함께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방안을 마련,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들었다.

지역 서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업체가 살아야 지방이 사는 것 아닌가.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본다. ▲전창현·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도·농결연,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으면

요즘 기업을 중심으로 1사1촌 운동이 한창이다. 이같은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정부 기관·사회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운동은 멀게만 느껴졌던 도시와 농촌이 가까운 이웃 사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가뜩이나 FTA 등으로 힘든 농촌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단순한 자매 결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도시민들에겐 내 고향처럼 드나들 수 있는 마을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도 피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보다 나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부대 1촌이나 1단체1촌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와 농촌이 연결됐으면 한다.

▲홍예진·순천시 송광면

無等鼓

잔인한 승부차기

야구의 '타자일순(一巡)'은 한 이닝에서 9명의 선수 전원이 차례로 타석에 들어서며 타순이 한바퀴도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축구의 '키커 일순'은 없는가. 물론 있다. 승부차기(TK : Taking Kicks from the penalty mark)에서 가끔 나온다. 우리나라 최다점수 승부차기 기록은 21대 20이다. 지난 2004년 8월 동두천정보고와 대구공고간 경기에서 나온 점수다. 선수 11명이 모두 두 차례이상 찼는데 골도, 실수도 번갈아가며 사이좋게 함께 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초등학교간 경기에서 무려 33차례나 승부차기를 한 기록이 있다. 무려 3 순을 한 셈이다.

승부차기는 관중입장에서야 짜릿하기 그지 없지만 선수에겐 '성공하면 본전, 실축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잔인한 룰이다. 이 규칙은 1970년 만들어졌고 1982년 스페인월드컵에 첫 도입됐는데 당시 4강전에서 맞붙은 서독과 프랑스가 정규 90분동안 3대3으로 비기고 연장전에 들어가 2골씩 넣어 무승부를 이룬뒤 최초의 월드컵 승부차기를 벌였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는 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 의해 우승팀이 가려졌다.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결승전, '창과 방패'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연장전까지 골 하나가 터지지 않았다. 결국 승부차기로 브라질이 승리했고 이탈리아의 영웅 로베르토 바지오는 실축으로 맹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플라티니나 마라도나 등 희대의 스타들 대부분이 실축의 장본인들이다. 천하의 프리킥의 달인 데이비드 베컴도 유로 2004 등 큰 대회에서 승부차기를 두번 실축한 끝에 아예 승부차기 명단에서 빼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 최고 선수들의 90분 사투와 그후 30분도 부족해 이어지는 숨막히는 승부차기의 쾌감까지, 잔인한 축구의 이 맛은 밤을 세워야만 향유할 수 있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